

‘첫 마이너스 승패 마진’ KIA, 승률 올릴까

7-9일 삼성전·10~12일 SSG전

지난주 2승 3패... 7할 승률 붕괴
최다 홈런·실책 ‘극단 공수’ 과제
최형우, 확실한 4번 타자로 활약
윤영철 휴식 선발 로테이션 조정



지난주 하위권 팀인
KT위즈와 한화이글스
를 상대로 2승 3패에
그치며 올 시즌 처음으

로 주간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KIA타이거스가 이번 주 상위권 팀인 삼
성라이온즈와 SSG랜더스를 상대로 승률
복구에 도전한다.

KIA는 지난주 KT에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은 뒤 한화와 마지막 경기가
우천 취소돼 1승 1패를 나눠 가지며 올 시
즌 23승 12패(승률 0.657)를 기록했다.
7할 승률이 무너졌고, 2위 NC다이노스에
1경기 차 추격을 허용했다.

홈런과 실책이 나란히 10개 구단 중 최
다를 기록한 극단적인 공수가 가장 아쉬
운 부분이었다.

KIA는 5경기에서 7개의 실책을 쏟아
내며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시즌 누
적 33개를 더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40개를 넘어섰다.

반면 5경기에서 9개의 홈런을 때려냈
다.

소크라테스가 세 차례 담장을 넘기며
타격 페이스가 바짝 올라왔고, 최형우도
두 차례 대포를 쏘며 타격감을 과시했다.
김선빈과 이우성, 한준수, 김도영도 힘을
보였다.

특히 소크라테스에 이어 최형우의 타격
감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최형우는 주간 타율 0.429(14타수 6안



KIA타이거스가 7일부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원정 주중 3연전, 10일부터 SSG랜더스와 홈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 최형우가 지난 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 맞대결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35	23	12	0	0.657	-
2	NC	35	22	13	0	0.629	1
3	삼성	36	20	15	1	0.571	3
4	SSG	36	19	16	1	0.543	4
5	LG	37	18	17	2	0.514	5
6	두산	37	18	19	0	0.486	6
7	키움	34	15	19	0	0.441	7.5
8	KT	37	15	21	1	0.417	8.5
9	한화	35	14	21	0	0.400	9
10	롯데	34	11	22	1	0.333	11

타)로 7타점 4득점을 생산했다. 장타율이
0.929에 육박하며 OPS(출루율+장타
율)는 1.367에 달했다.

●삼성, 순조로운 선발 야구 전망
삼성은 지난주 2승 3패에 그쳤다. 두산
을 상대로 1패 후 2승을 거두며 워닝 시리
즈를 챙겼지만 롯데에 2연패(1경기 우천

취소)하며 루징 시리즈를 안았다.
순위와 승차 모두 3위와 3경기로 변동
이 없었다.

KIA는 삼성을 상대로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한다. 이범호 감독이 우천 취소로 휴
식을 취한 윤영철에게 조금 더 휴식을 부
여하기로 하면서 양현종과 네일, 윤영철
순서로 선발을 가동한다.

이 감독은 “양현종과 네일의 등판 날짜
를 지켜준다. 또 양현종과 네일이 한 주에
두 번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스타일이 비슷한 윤영철과 양현종이 떨
어져서 던지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
다.

삼성은 이승현과 이호성, 워테인 순으
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다.

이승현은 지난달 30일 두산전에서 5이
닝 3실점에도 패전을 당하는 불운을 안았
고 이호성은 1일 두산전에서 5.2이닝 2실
점(1자책)으로 데뷔 첫 승을 챙겼다. 원

태인은 2일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비
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맥키넨과 김영웅의 활약이
돋보였다. 맥키넨은 주간 타율 0.450
(20타수 9안타)으로 3타점 4득점을 생산
했고, 김영웅은 0.368(19타수 7안타)로
4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SSG, 최악 향하는 마운드 흐름
SSG도 지난주 2승 3패에 그쳤다. 한화
를 상대로 1패 후 2승으로 워닝 시리즈를
가져왔지만 NC에 2연패(1경기 우천 취
소)하며 루징 시리즈를 안았다.

순위와 승차 역시 4위와 4경기로 변동
없었다.

SSG를 상대로는 대체 선발이 투입된
후 크로우와 양현종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KIA는 대체 선발 고민을 안고 있었지
만 황동하가 지난 3일 한화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처음 5회를 마치며 눈도장을

찍었다. 황동하가 대체 선발로 다시 투입
될 전망이다.

SSG는 김광현과 엘리아스, 송영진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거의 퇴출과 박종훈의 부진으로 인
한 빈자리를 송영진과 이기순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진이 첫 주 2회 등판
을 소화할지가 관심사다.

다만 SSG의 마운드 흐름이 최악인 상
황이다. SSG는 지난주 팀 주간 평균자책
점이 9.20,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
는 2.00에 달했다. 선발과 볼펜 모두 과부
하가 걸린 상태다.

타선에서는 은퇴 전 마지막 불꽃을 태
우고 있는 추신수가 중심 역할을 했다. 추
신수는 주간 타율 0.357(14타수 5안타)
로 2타점 3득점을 생산했다.

내야에서는 고명준이 가장 돋보이는 활
약을 펼쳤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시청 근대5종팀이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전북 완주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4종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시청 근대5종팀 제공

광주시청 근대5종 성진수, 실업연맹회장배 2관왕

남자 일반부 4종 개인·단체 석권

광주시청 근대5종팀 성진수(30)가 제
11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4종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거머
쥐며 2관왕에 올랐다.

성진수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
지 전북 완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일
반부 4종 개인전에서 총점 1193으로 금메
달을 거머쥐었다. 성진수는 수영에서
290점으로 5위를 기록한 뒤 펜싱에서
274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레이저런(사격+육상)에서 629점
으로 9위에 그쳤으나 총점 합계 1위를 차
지하며 김우철(완주군청·총점 1175)과
최창민(충남도청·총점 1170)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또 성진수는 남자 일반부 4종 단체전
에서 윤상민(24)과 김영석(25), 이현웅
(36)과 총점 3483으로 금메달을 합작했
다. 성진수가 1193점을 획득한 가운데 윤
상민이 1153점, 김영석이 1137점, 이현
웅이 1101점으로 상위 3명 합계 3483점
으로 충남도청(총점 3475)을 8점 차로
제쳤다. 한규빈 기자

‘광주 양궁 자존심’ 오예진, 대학 무대에 적수가 없다

종별선수권 대회신기록 2관왕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오예진(광주
여대 3)이 제58회 전국남·여 양궁 종별선
수권 대회 여자 대학부에서 대회신기록으
로만 2관왕을 차지하며 대학 무대에 적수
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오예진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4일까
지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이
번 대회 여자 대학부 개인종합에서 대회
신기록인 1389점을 쏘며 염혜정(경희대·
1370점)과 정다예나(창원대·1369점)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에서 4위
로 파리 올림픽 티켓을 놓친 오예진은 이
번 대회에서 절치부심했다. 거리별 경기
에서 70m 대회신기록인 345점으로 금메
달을 차지했고 50m와 30m에서는 은메
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를 수확했다. 서보은(순천대 2)은 30m
에서 은메달, 60m에서 동메달을 땀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최민선과 김수린
(이상 광주시청)이 호성적을 냈다. 최민
선은 5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수
린은 개인종합에서 은메달, 30m에서 동
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가운데)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제58회 전국남·여 양궁 종별선수권 대회 여자 대학부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 올라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가 금메달 2개
와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등 무더기 메
달 사냥에 성공했다. 여자 고등부에서 남
지현(2)이 30m 금메달, 개인종합과 70
m 은메달을 수확했고 이다영(3)이 70m
금메달과 개인종합 동메달을 거둬들였다.

남지현과 이다영은 여자 고등부단체전
에서도 이율아(2), 김성령(1)과 은메달
을 합작했다. 남자 고등부에서는 심유한

(1)이 90m 동메달, 최우진(3)과 박주혁
(1)이 30m 동메달로 힘을 보탰다.

중등부와 초등부에서도 값진 메달을 수
확했다. 남자 중등부에서 김종연(광주체
중 3)이 60m 금메달, 여자 중등부에서 강
수정(광주체중 2)이 50m 은메달을 땀
다. 남자 초등부 11세 이하부에서는 곽태
우(삼정초 4)가 20m 은메달을 수확했고
남자 초등부단체전에서는 성진초가 동메
달을 차지했다. 한규빈 기자